주일 메시지 요약 **2026년 10월 25일**

길과 법 렘5:1-9

우리가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모세가 어머니로부터 복음을 받고 나중에 그것을 다 기록을 할 정도로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그에게 사명의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는 그냥 양치기나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모세에게 사명이 임하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에 큰 변화가 있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이처럼 복음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또한 사명이 없으면 복음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작품 인생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항상 영원히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명은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안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답을 가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원죄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의 보혈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알고 그 안에 있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바로 알고 누리는 것이며 복음에 대하여 생각하고 정리하고 각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가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행했던 모든 일은 아무런 상급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하여 한 일이 하나님의 상급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알고 누리고 전하고 사람을 살리고 제자를 세워 또 다른 나를 만드는 것 보다 더 귀한 일은 이 땅에 없습니다.
여기에 눈이 열리면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작품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1. 길과 법

1) 본문 4절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5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2) 여기에서 가져 온 말씀입니다. 6절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길과 법을 버리고,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3) 세상에 하나님의 법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따라 가는 말씀의 길이 없어지면 자연적으로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단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항상 음란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7절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4)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길을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법을 회복하고 길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법과 길에 대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들처럼 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주님이 길이요 그리스도가 법입니다. 주님은 요14:6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으니 주님이 길입니다.
5) 법은 일단 율법을 말합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율법입니다. 수 만 가지의 법이 기록되어 있고 하라 하지 말라에서부터 복음의 원리까지 모든 법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법을 요약한 것이 10계명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6) 그런데 마22:37-40 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와서 주님에게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고 질문한 것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37절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 째 계명이요 (신6:5)

7)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 율법은 모세 5경이요 그 외의 모든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선지자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라는 말씀입니다.

8) 그러면 성경에 있는 모든 길과 법의 요약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길이요 법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무엇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9)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리스도 밖에는 하나님 사랑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유일한 중보자라고 합니다. 우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을 하든지 말든지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10)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없이 누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은 지옥입니다. 지옥 구덩이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은 단 한 영혼도 이웃을 돌아보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없이는 이웃 사랑도 불가능입니다. 미움과 원망과 죽이는 것은 원죄 이후의 사단의 역사입니다

11) 그래서 정리를 하면 주님의 말씀은 내가 네 이웃 사랑이요 내가 곧 너의 하나님 사랑이니라. 율법사는 못 알아들었겠지만 주님의 말씀은 내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뜻이었고 내가 성경의 요약이야. 내가 성경의 핵심이요 결론이야. 내가 성경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12) 마12:6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밀밭을 지나다가 제자들이 밀을 손으로 부벼서 먹은 일을 두고 바리새인들이 주님에게 시비를 걸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13) 모든 율법의 결론은 성전입니다. 희생제사가 율법의 결론이니까요. 그렇다면 주님은 율법 위에 계신 분입니다. 주님은 율법을 만드신 자며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실 이유가 없고 율법이 오히려 주님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모든 율법과 그 외의 모든 성경의 강령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성경은 자신에 대하여 기록한 책이라고 하셨습니다.

14) 그러면 결국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모든 말씀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또한 우리의 법입니다. 저주에서의 해방은 우리의 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길입니다. 저주를 정복하고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뱀의 머리를 깨고 승리하고 정복하는 것은 우리의 법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모든 영적 승리의 길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절대로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길이요 법입니다. 천국 열쇠 마찬가지 입니다.

15) 이 언약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누리고 승리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